



조선식 과학기술 개척자 장영실을 노래하다

과학뮤지컬 <천상세계> 연출가 방은미

VD Special
 벤처인, 희망의 **EXPLORER** 테 마 인 터 뷰

방은미 대표가 연출을 맡은 극단 아리랑의 2004 창작뮤지컬 <천상세계>는 조선 최고의 발명가이자 기계 기술자 장영실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방 대표는 장영실이라는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기 위해 1년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위인으로서의 장영실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 장영실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의 조각들을 진실된 손길의 씨줄날줄로 엮어냈다.



▲ 15세기 조선식 과학기술을 개척한 선구자 장영실의 삶을 다룬 과학뮤지컬 <천상시계>를 연출한 극단 아리랑 방은미 대표(맨위 사진)와 연습·공연장면들

“장 영실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조선 역사를 뒤집어 놓고 홀연히 사라졌지만 그 명성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외로움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공연이 끝나고 만난 방은미 대표의 얼굴에는 여전히 연극의 잔향이 짙게 남아 있다. 한 인간에 대한 탐구를 담아내는 연극을 만들어내는 연출가로서 그 인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동이 남달라 수밖에 없다.

“세종과 장영실은 당대 경시되었던 천문역법을 소중히 키워 오늘날의 이공계 인재 육성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2004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오늘날, 참된 열정과 치열한 연구를 통해 이 시대에 진정한 과학자의 밑그림을 전해준 과학 선현 장영실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 공연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장영실이, 기생의 자식이라는 낮은 신분적 위치를 비판하고 좌절했다더라면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룩하지 못했겠지요. 또한 그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요.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많은 벤처인들에게도 유효한 희망의 메시지 아닐까요?”

토종 창작극 - 희망을 오늘이 아닌 내일에 걸자

극단 아리랑은 '전통연희의 재창조'라는 기치 아래 1986년에 설립된 창조적 연극 공동체로 <대한민국 김철식>, <정약용 프로젝트> 등 일련의 한국형 토종 창작극을 꾸준히 공연해왔다. 이번 <천상시계>에서도 그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국 전통국악 음계를 사용한 음악과 궁중 무용을 비롯한 우리 전통춤을 우리 식의 창조적인 몸짓으로 살려내는 보다 본격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뮤지컬 분야에 있어서는 수입 복제 뮤지컬의 그늘을 벗어나 보다 독창적인 토종 뮤지컬에 도전한 셈이다.

사실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적 인물극에 대한 편견을 비롯하여 오랜 연극계 제작현장의 어려움은 방 대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갈 길은 멀지만 열악한 제작여건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곤 했던 것.

“제작비 앞에서 비겁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적어도 수입 복제 뮤지컬의 홍수 속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스스로 선별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잖아요.”

연극은 삶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

오랜 시간 연극을 사랑하고 꾸준히 양질의 작품을 만들어온 방 대표가 무엇보다도 가장 바라는 것은 역시 많은 관객들과의 만남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자양분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앞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길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 생산자들이 정신적 동력으로서 주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 자리에 모여 연극 한 편을 관람한다는 것은 공동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유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문화는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장르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수 창작극만으로 우리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극단 아리랑의 방은미 대표. 인간에 대한 진심 어린 감동과 끊임없는 탐구의 자세로 연극을 만들어가며 진정한 사람살이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Tip

벤처인들과 극단 아리랑의 행복한 만남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는 좋은 연극 문화를 틈틈히 키워나가기 위한 극단 아리랑의 힘찬 여정에 벤처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예쁜 기념품과 극단 아리랑이 공연하는 모든 공연의 초대권, 아리랑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극단 아리랑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연회에 우선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 월 정기후원회원 : 1만원 | 1년 후원회원 : 10만원 | 평생 후원회원 : 50만원

현금후원뿐만 아니라 복사기나 컴퓨터, 온풍기, 에어컨 등 사무용품도 반기운 선물이 됩니다.(문의 02-741-5332)